

臺師大文學院韓國學與語文學分學程

2024 年韓國探訪計畫

研究報告書

公領四 楊潔欣

주제: 일치시기의 정치 억제와 사회 통제 : 대만과 한국의 비교 연구

• 연구배경과 동기

일치시기에 일본 정부가 대만과 한국 모두에 대해 정치적 억제와 사회적 통제 수단을 어느 정도 했다. 서대문형무소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도소로 많은 한국 독립유공자들의 항쟁 역사를 담고 있다. 서대문형무소는 1907 년 일제강점기 통감부가 식민통치에 저항한 운동가들을 수감하기 위해 현재의 서대문구에 건립하였다. 1908 년 10 월 문을 열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서울구치소로 불리며 시국사범이 주로 수감되었다.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한 후 1987 년 10 월에 폐쇄되었다. 이후 일부 시설물은 철거되고 나머지는 1988 년 2 월 27 일 한국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98 년 11 월 5 일부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관리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재개관되었다. 1992 년부터는 독립공원의 주요 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이 교도소는 항일 독립 운동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탄압 방식과 당시 한국 국민의 심각한 반발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대만이 일치시기에는 형무소도 있지만 대표적인 시설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대만의 타이베이형무소는 1896 년에 일본이 대만 식민지화 이후 2 년만에 중국 청나라의 옛 선부 요관인 위치를 개조하여 건립되었다. 당시에는 "타이베이 현 타이베이 감옥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904 년에는 타이베이 시외로 재건되었고, 1924 년에는 타이베이형무소로 명명되었다. 총 면적은 58752 평방미터이며, 미국의 "펜실베이니아형" 감옥 구역 배치법을 채택하여 독방 감금을 강조했다. 감방은 방사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 복도와 중앙 감시대를 통해 관리와 감시가

용이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대만 광복 이후에도 "타이베이형무소"은 계속 사용되었다. 많은 공산당 용의자들을 수용했다. 1963 년까지 타이베이형무소는 타오위안의 구산 지역으로 이전되었다.또한,일치시기에 대한 대만 사람들의 태도도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더욱 항거하여 침략과 착취로 간주한다.반대로 대만인들은 역사의 복잡성을 더 강조한다.일제시대를 근대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식민지 지배에 분개하는 시각도 있다.따라서 정치적 저항,죄수 처분 등에서 양 국가에 대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

•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치시기에 대만과 한국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치적 억제와 사회적 통제의 차이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서대문형무소와 대만 각지의 형무소를 통해 정치적 저항과 죄수 처분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대응 수단이 현지 역사,문화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치시기 정치적 항쟁에서 한국과 대만 국민의 항쟁 활동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와 형식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2. 서대문형무소와 대만 각지 형무소의 죄수 처분 차이점은 무엇인가?현지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달라진 태도가 반영된 것인가?
3. 일본 정부가 두 지역에서 했던 탄압 수단은 역사,문화,기타 요인의 영향을 받았는가?

•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위의 연구 문제를 위해 역사 연구,문헌 분석,그리고 현장 조사를 시실할 것이다.두 지역의 교도소 기록,정부 문서,개인 회고록 등을 비교하여 당시 정치 분위기와 일본 정부의 대응 조치를 해석하려 했다.주요 연구 내용은 관련 자료와 연구 문헌에 대한 상세한 검토이다.일치시대 일본 정부가 한국과 대만에 대한 시행한 통치 수단에 대한 정보를 찾을 것이다.서대문형무소를 한국 주요 연구

대상으로 건립 배경, 운영 방식, 수감자 처단 방식 등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대만에서 대표적인 각지 형무소 자료를 수집하여 양 국 비교를 할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정치적 저항, 수감자 처리 등의 차이를 연구하고 가능한 원인과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 연구 결과

이번 한국 탐방계획에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시기 일본 정부의 한국과 대만 통치전략의 차이를 깊게 분석할 수 없었다. 이번에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문실이다. 정문 앞의 보안과 건물 지하층에는 수감자를 고문하는 공간이 전시되어 있다. 조사실과 취조실로 구성된 이 고문 장소에서는 일본이 어떤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죄수들을 고문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의 고문 종류와 생존한 애국지사의 증언도 소개되어 있다. 서대문형무소에 기록된 자료를 보면 일치시기 일본 정부가 한국인 수감자들을 고문한 조치로는 물 고문, 인두 고문, 주리틀기 고문, 벽관 고문, 벽관 고문, 주리틀기 고문 등이 있어 가혹한 고문으로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강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대만의 형무소를 탐방하지 않았지만 현재 대만과 한국 양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양국 정부의 형무소 처리도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서대문형무소를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여 당시 한국독립운동가들이 받은 박해를 현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대만은 타이베이 형무소를 일본식 관광단지로 바꿨다. 본 연구는 일치시기 일본 정부가 대만과 한국에서 실시한 통치 조치를 다방면으로 비교할 것이다. 대만과 한국의 정치적 항쟁 및 죄수 처분에 대한 역사 기록을 분석하여 일본 정부가 양 국가에서 실시한 억제 수단의 차이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또한, 대만과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치전략에 영향을 미친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당시 일본 정부에 대한 양국 국민 가진 태도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 예상 결과는 일치시기 대만과 한국에 대한 기존 문헌의 심층 비교 연구의 부족을 보완할 것이다. 향후 관련 분야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탐방소감

• 낙삼공원:

이번 한국 탐방계획의 첫 번째 일정은 낙산공원이었다. 낙산공원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았지만 실제로는 가본 적이 없었다. 낙산공원에 대한 내 인상은 주로 야경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침에 방문했다. 전날의 대설 때문에 등산로에는 아직도 눈이 남아있어 걸어나니기가 매우 미끄러웠다. 아침 낙산공원에는 우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른 아침 운동을 즐기는 어르신들뿐이었다. 등산하는 도중에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짓는 데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느꼈다. 오래전에 한성의 범위가 크지 않았음을 느꼈다. 정상에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친구들과 함께 예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매우 행복했다.

• 덕수궁:

덕수궁은 역사과 현대 둘 다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덕수궁 석조전은 이번 탐방 프로그램 중 안내원의 설명을 들은 몇 안 되는 명소다.예약을 통해 가이드분의 안내를 받으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둘러봐서 의미 있는 관람이었다. 고종의 개혁 의지가 담긴 건축물인 석조전은 1910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또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고궁 내부의 구조와 사용 용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처럼 덕수궁 석조전을 방문하는 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덕수궁은 서울에서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인데 이번에 처음 가봤다.덕수궁에 대한 옛 인상은 봄에 벚꽃이 아름답다는 것 외에도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도시전설이다.덕수궁은 경복궁과 비슷한 고대 전통의 궁궐이라고 생각했다.서양식 건물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석조전 안은 바깥의 궁궐 양식과 전혀 다른 서양 스타일이다.안내원의 말이 엄청 빨랐기 때문에 예전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지금 내용물은 재건된 것이라고 말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만약 모든 가구와 장식이 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면 모든 가구가 새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 잘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그중에서도 가이드가 거울이 당시 비싼 물건이었다고 신기해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그리고 석조전 안에 있는 거울은 보통 사람 키만큼 잘 보이는 곳에 놓인 것이 아니라 엄청 높은 곳에서 걸려서 그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높은 곳에 놓았는지 궁금하기도 한다. 덕수궁 관람 소감 한마디로 한다면 덕수궁에 가려면 석조전은 무조건 가야한다.

• 청량리 시장:

청량리 시장은 전형적인 재래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한국 현지인들이고 관광객은 그렇지 많지 않다. 시장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구역으로 나뉜다. 그날 청량리 시장에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딸기를 사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과일을 파는 곳으로 달려갔다. 거기엔 각양각색의 노점상들이 있었고, 사방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딸기 두 상자를 골랐는데, 모두 18000원을 썼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숙소로 돌아와서 딸기를 맛보니 신선하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풍겨서 실망했다. 첫 번째 청량리 시장 체험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나중에 서울에 또 가면 청량리 시장을 가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망원시장을 선호한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경복궁 맞은 편에 있는데 처음 가보는 곳이다. 나는 조용한 전시물 관람하기 싫어해서 그런지 역사박물관이 이번에 방문한 박물관 중 가장 재미있었다. 역사박물관 4 층에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게임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각종 게임 속에서 수십 년 전의 트렌드, 팝송 등을 되새기게 된다. 전화를 걸면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을 들을 수 있는 오래된 전화기도 있다. 게임 중 하나는 한국의 고등학교 입학 시험과 대학 수능을 본다는 것이다. 한글 시험 문제를 각각 세 문제씩 냈다. 결과는 내가 고등학교 입학에는 합격했지만 수능에서는 실패하여 재시험을 해야된다. 이것도 아주 재밌었다.게임 중에서 인생 네 컷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임 가장 재밌었다. 필터는 올림픽과 같이

몇 년 전에 일어난 큰 사건들을 곁들일 것이다. 친구들과 기념으로 남기기에 재미있었다.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안에는 특별한 곳이 있다. 공원 안에는 예전 한국의 가게들이 있는 작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거리에는 이발소, 커피숍, 목욕탕, 옷가게 등이 있다. 내부부터 외부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재현되어 과거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 곳은 예쁜 사진을 많이 찍기에 추천한 곳이다.

• 점심교류시간:

관광지는 아니지만 교류 시간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경복궁에 가기 전 점심 시간에 한국인과 교류 시간이 있었다. 우리 테이블에는 고려대학교 1학년 남학생이 있었다. 남자분이 고려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 그 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많이 감탄했다. 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고 대만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대만 대선을 막 끝났기 때문에 식사 동안 대만 정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 분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입법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대만 방송국 TVBS 의 정치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대만에서도 그렇게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한국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 청와대:

청와대를 방문했던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청와대는 2년전부터 외부 사람들에게 개방했다.이번에 나는 처음 가봤다.청와대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원래는 뉴스에서만 보는 장소가 내 눈 앞에 나타났다.정말 한국 정치의 중심지로 온 것 같았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운영 방식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과 회의실에서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장식을 감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결정의 분위기와 현장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다. 청와대를 나올 때에는 한국의 정치 제도와 문화에 대해 더 깊게 체험한 기분이었다. 이 나라에 대한 더 많은 호기심과 존경심이 생겼다. 이번 탐방 프로그램은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 소중한 경험이었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남겨주었다. 유명한 곳도 많이 구경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행복한 경험이 되었다.